

3
-
1

회의문자①



却

물리칠
각

却자는 '물리치다'나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却자는 卩(병부 절)자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却자에서 말하는 '물리치다'라는 것은 되돌리거나 피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谷(골 곡)자가 들어간 卻(물리칠 각)자가 쓰였었다. 卻자에 쓰인 谷자는 '골짜기'를 그린 것으로 여기에 卩자를 더한 卻자는 도저히 골짜기를 넘어갈 수 없으니 포기하고 '돌아가다'라는 뜻이었다. 却자는 본래 卻자의 속자(俗字)였지만 지금은 却자가 '물리치다'나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却

소전

卻

해서

3
-
2

회의문자①



姦

간음할
간:

姦자는 '간음하다', '간통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姦자에는 3명의 여자가 그려져 있다. 3명의 여자를 그린 것이 어찌하여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부권의식이 강했던 고대 중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러한 인식은 문자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女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姦(시끄러울 난)자는 '시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姦자는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간음하다'라는 뜻은 姦자가 아닌 奸(간음할 간)자가 쓰이기도 한다.

姦

금문

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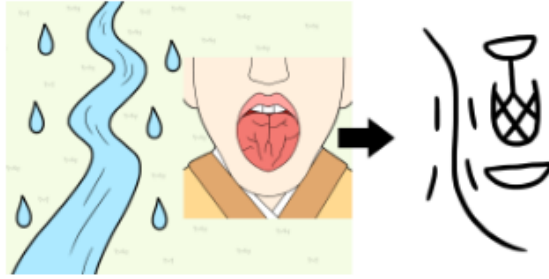
소전

姦

해서

3
-
3

회의문자①



渴

목마를
갈

渴자는 '목마르다'나 '갈증이 나다', '갈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渴자는 水(물 수)자와 𩚑(어찌 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渴자는 '어찌'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渴자를 보면 갈라진 혀바닥을 내밀고 있는 𩚑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목이 마르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갈라진 혀바닥 모양을 渴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渴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渴

금문

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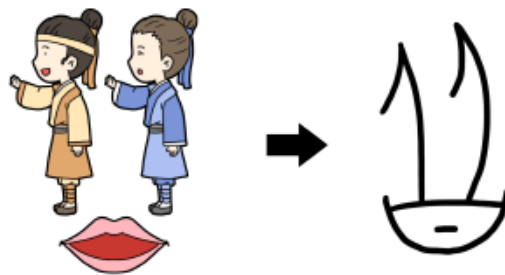
소전

渴

해서

3
-
4

회의문자①



皆

다[總]
개

皆자는 '다'나 '모두', '함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皆자는 白(흰 백)자와 比(견줄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皆자의 금문을 보면 白자가 아닌 𠂔(말씀 왈)자가 𠂔 쓰여 있었다. 比자가 서로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고 𠂔자가 '말'을 뜻하니 皆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皆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에서 '모두'나 '다 함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皆자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글자와 결합해 '모두'라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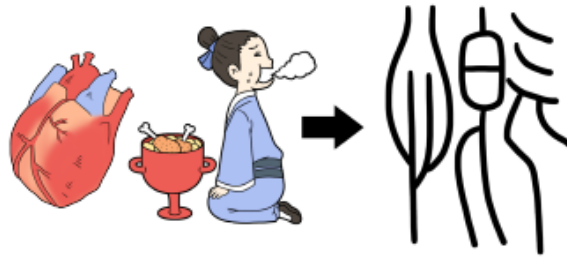
소전

皆

해서

3
-
5

회의문자①



慨

슬퍼할
개:

慨자는 '슬퍼하다'나 '분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慨자는 心(마음 심)자와 既(이미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既자는 식기에 담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앉아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다 먹어버린 모습을 그린 既자에 心자가 결합한 慨자는 음식을 혼자 배불리 먹어버린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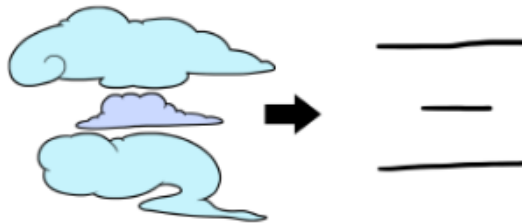
소전

慨

해서

3
-
6

상형문자①



乞

빌
걸

乞자는 '빌다'나 '구걸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乞자는 乙(새 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乞자는 구름이나 공기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乞자는 气(기운 기)자와 같은 글자였다. 乞자의 갑골문을 보면 三자와 같은 세 개의 획이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공기의 흐름을 표현한 气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气자는 米(쌀 미)자를 결합한 氣(기운 기)자가 되었고 획을 하나 줄인 乞자는 '가난하다'나 '구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三

갑골문

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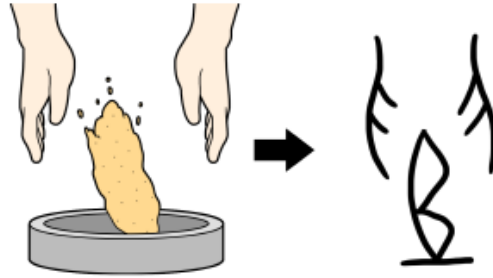
소전

乞

해서

3
-
7

회의문자①



遣

보낼 견:

遣자는 '보내다'나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遣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責(귀할 귀)자, 阜(언덕 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遣자를 보면 양손으로 阜자를 감싼 모습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용기에 무언가를 담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遣자는 본래 제기 그릇의 일종을 뜻했던 글자였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여기에 辵자가 더해지면서 '놓아주다'나 '보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릇에 무언가를 던져 넣는 모습에서 '놓아주다'라는 뜻이 파생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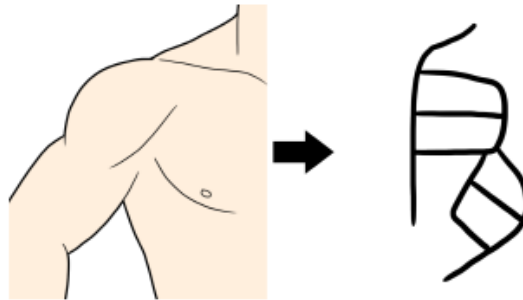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8

회의문자①



肩

어깨 견

肩자는 '어깨'나 '짐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肩자는 戶(지게 호)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戶자는 외달이 문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사람의 한쪽 어깨로 응용되었다. 肩자는 사람의 어깨를 뜻하기 위해 戶자를 응용한 것으로 어깨에서 연상되는 '(무게를)견디다'나 '말다', '짐어지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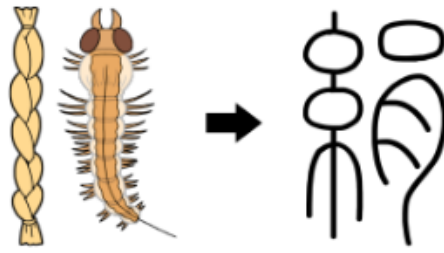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9

회의문자①



絹

비단 견

絹자는 '비단'이나 '명주', '견직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絹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冂(장구벌레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冂자는 입이 큰 장구벌레를 그린 것으로 '장구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다. 絹자는 누에가 만든 비단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본래 누에를 뜻하는 한자로는 蠶(누에 잠)자가 있지만, 글자가 너무 복잡해서인지, 冂자를 누에로 응용한 絹자가 '누에가 만든 실'인 '비단'을 뜻하고 있다.

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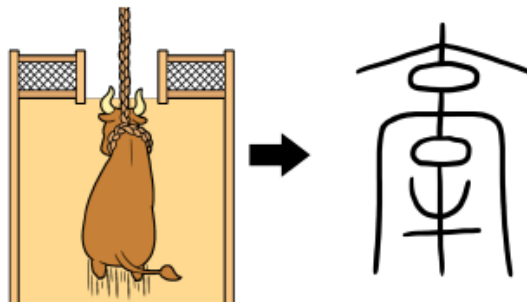
소전

絹

해서

3
-
10

회의문자①



牽

이끌/끌
견

牽자는 '끌다'나 '이끌다', '강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牽자는 玄(검을 현)자와 冂(덮을 먹)자, 牛(소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玄자는 활시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줄'을 뜻하는 玄자에 牛자가 결합한 것은 소의 코뚜레에 고삐가 걸려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덮다'라는 뜻의 冂자까지 있으니 牽자는 고삐에 걸린 소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다. 牽자는 이렇게 소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에서 '끌다'나 '강제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牽

소전

牽

해서